

루터의 덕의 윤리에 관한 연구: 루터의 칭의론을 중심으로

이근식 (감리교신학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덕의 윤리와 루터사상의 갈등과 접점

1. 루터의 사상 속에 나타난 덕의 윤리의 가능성
2. 교회 권력의 해체와 바른 권위의 설정
3. 권위 앞에서 복종과 훈련

III. 덕의 형성

1. 행위와 행위자
2. 구원과 칭의의 기질
3. 칭의의 성향과 덕의 형성

I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2>

• ABSTRACT •

A Study on Virtue Ethics of Martin Luther: Concentrating on his Thought of Justification

Lee, Keun Si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t has been thought that there is simply no connection between Aristotle's thought that virtue and a general character of human being is deeply embedded in soul and Luther's thought that human being cannot have any ability of good work spontaneously at the front of God. It is crucial point in the virtue ethics that viewpoint as a real nature of virtue to act the good work is instilled by external or is inherent. Despite this stark difference, the conflict with Luther and Aristotle in virtue ethics may discover the equilibrium point by Stanley Hauerwas's theological virtue ethics. Luther used the concept that covenant causal relationship and minimum condition is to be demanded in Justification. Luther had basic discernment that appropriate disposition to obtain Justification is humility. Luther made a strong claim that Justification is direct and characteristic encounter with Holy Spirit and human being and it was presented by God. But his thought about God's word, relationships of belief and individual character of belief had been occupied an important part in his ethical thought. Even if Luther denied human intrinsic disposition and virtue to explain motive power of Justification was endowed by God, we cannot overlook durability of act and consistency of performer. Stanley Hauerwas who have theological perspective and is representative scholar in virtue and character ethics insists that self should have consistency and durability to explain character. As a result of, the conviction and action of Christians in Luther's thought should be identified with christian's identity and it was represented by lasting continuity of action. A method of explanation about consistency and durability in his thought is suitable in ethics of virtue and character.

Key words: Luther, Virtue, Character, Justification, Humility

I. 들어가는 말

교회가 사랑, 정의, 인내, 희생, 용기, 화평과 같은 기독교의 주요 덕목들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물, 교세, 결산액과 같은 보이는 가치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다. 게다가 사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 갈등, 분열은 인간 존재를 더 이상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사물화시키고 있다. 국가 작게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인간다움을 통하여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다움은 사라져 가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동물로 비유되고 있으며(예를 들자면 개독교와 같은) 개개인의 사람들은 벌레(맘충과 같은)로 불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인간은 분명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사물이 아니다. 인간됨이란 내적 본질을 가지며 그 내적 본질로 인하여 바로 그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¹⁾ 인간이 사물화가 되고 공동체가 동물화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인격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와 내적본질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루터의 두왕국론과 칭의론의 사상은 옛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나타난 신학이다.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새로운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고 속성으로서의 구별이 아닌 본질로서의 구별을 나타내야 했다. 교회가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않는 국가권력과 교회 권력의 야합을 벗어나려는 루터의 시도는 현재 한국 교회가 몸부림쳐야 하는 모습 이라고 여겨진다. 교회의 자기 부패는 교회 자체를 인격이 아닌 사물로 바꾸어 버렸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물화된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루터는 권력과 안전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기를 소

1) 스큷트 래, 폴 콕스, Bioethics : a Christian approach in a pluralistic age, 김상득 역, 『생명윤리학』, (서울: 살림출판, 2004), 254.

망하였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형성함으로써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원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교회는 루터의 원래 의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오히려 루터의 사상이 교회의 도덕성 부재와 분열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글은 덕과 성품의 윤리가 루터의 두왕국론과 칭의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게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과제는 루터의 두왕국론과 칭의론 속에서 덕과 성품의 개념을 찾아 현대 덕 윤리의 핵심 주제인 덕과 성품의 윤리와 연결점을 찾는 것이다. 첫째로, 루터의 두왕국론을 콘스탄티니즘 대한 반작용과 권력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면서 새로운 진리의 권위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다. 교권의 거만함에 항거하고 자 세속 제도적 권위에 복종하도록 했던 루터의 대안적 선택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할 것이다. 둘째로, 두왕국론이 영적질서와 세속적 질서의 이원론적인 구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영적 질서의 본성이 세속 질서에 실현되는 것으로 연결점을 찾아볼 것이다. 세속 질서는 행위자의 행위를 위한 토대와 환경이며 영적 질서는 행위의 본질을 결정짓는 행위자의 본성과 성품을 만드는 기초라는 전제 속에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루터의 칭의를 위한 적절한 성향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하여 내적 기질과 외적 부여의 관계를 설명해 나갈 것이다. 믿음의 겸손 자체가 인간 내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 사역으로 인지하는²⁾ 루터의 관점과 덕의 형성을 위한 내적 성품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의 덕의 개념을 살피볼 것이다.

2) 알리스터 맥그레스, 정진오·최대열 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 (서울 : 컨콜디아사, 2001), 165.

이 연구의 방향은 루터의 두왕국론과 칭의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상 속에 지금까지 그가 받아왔던 비판의 주된 부분인 두왕국론의 사회윤리적 사상이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정치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 변혁을 결정하는 정치적 상황으로 방출되지 않았다는 점³⁾ 등을 루터의 덕의 윤리의 발견을 통하여 극복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두 신학적 사고의 불일치와 일치 속에서 사상적 접목의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II. 덕의 윤리와 루터사상의 갈등과 접점

1. 루터의 사상 속에 나타난 덕의 윤리의 가능성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가지고 있다. 첫째, 루터에게 그리스도인이 됨은 지상적 영역의 개선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행위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수위(首位)에 있다고 확언치 않는 자들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순수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발적인 기쁨⁴⁾이라고 말한다. 1545년 대림 제4주일 ‘멋있는 가르침’ 설교에서 루터는 말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식사를 했거나 안 했거나, 항상 기뻐하는 백성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기쁨과 용기로 가득 차서 기뻐하는 백성이어야 한다.⁵⁾

3) 박정진, “루터의 사회윤리사상,” 『기독교사상』 305 (1983), 74.

4) 구스타프 빙그렌, 맹용길 역, 『루터의 소명론』, (서울: 컨콜디아사, 1975), 149.

5) 페터만스 편역, 이수현 역, 『마르틴 루터의 강론』, (서울: 분도출판사, 1995), 162.

분명히 루터의 설교 속에는 마음속에 있는 기쁨, 용기, 겸손함을 통한 행위를 표현한다. 둘째, 루터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개혁”임을 말한다. 사회나 정부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개혁방법은 제도나 기관들의 개혁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개혁이라고 본다.⁶⁾

루터의 두왕국론 안에는 한 기독교인의 실존 안에서 겹쳐지는 영적영역과 공적영역이 존재하며 이것은 이중적인 규범이 부딪치는 갈등영역을 초래하게 된다⁷⁾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루터는 그러한 갈등영역을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세워진 집들이다”⁸⁾라는 견해를 통하여 양 질서를 포괄하는 교회공동체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한다.

알트하우스는 루터의 믿음의 개념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우리 안에서 용기와 힘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만이 존재 한다⁹⁾고 말한다.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구원론적인 관계, 죄인과 구원자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¹⁰⁾ 알트하우스는 루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그리고 칭의의 교리의 범주 내에서 명확해진다고 본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계성, 믿음의 개인적 성품, 경험과 이성과 믿음의 관계성에 관심을 기울였다¹¹⁾는 것이다. 또한 슈텐달(K.Stendahl)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있

6) 김주환, “마르틴 루터의 인간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 (2000), 164.

7) 박충구, 『종교의 두 얼굴』, (서울: 홍성사, 2013), 64.

8) 마틴 루터, *Luther's Works volume eight*, 지원용 편역, 『루터선집 제8권』, 71.

9)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1), 43.

10) 정병식, “칭의와 성화를 통해 본 루터신학의 현대적 의의,” 『신학사상』 135 (2006), 75.

11)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43.

는 서구신학은 개인의 내성적인 양심(introspective conscience)의 차원에서, 구원론에 관심을 기울여 칭의론을 해석하여 왔다¹²⁾고 본다. 이러한 루터의 신학 사고에 대한 이해 중, 알트하우스의 “관계성”과 “믿음의 개인적 성품” 그리고 슈텐달의 “내성적인 양심”의 개념을 통한 루터에 대한 이해는 덕의 윤리와 그의 사상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2. 교회 권력의 해체와 바른 권위의 설정

루터는 정치적 권력과 교회의 권력은 종합되거나 유착될 수 없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루터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종교와 정치의 야합적 사건의 반복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 정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고, 세속 권력이 기독교 신앙을 이용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루터는 중세 가톨릭교회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교회의 우월성을 많은 부분 포기 했다.¹⁴⁾ 루터는 교회가 세속 권력과의 야합을 단절시키면서 그 영역에 한계를 긋는다. 세상 권력은 그 자체를 오직 인간 삶과 사회의 외적인 문제들에만 관심하여야 하며 그 권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신앙의 문제들에 간섭할 수 없다¹⁵⁾는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사상은 현대 덕 윤리학자인 하우어스의 콘스탄티니즘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다.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는 유약한 동물이라고 주장한다. 루터가 말한 “우리의 안전보장은 궁극적인 우상이다”라는 주장을¹⁶⁾ 하우어스는 현

12) 김종길,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믿음,” 『신학사상』 144 (2009), 10.

13)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1.

14)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194.

15)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인간이해,” 181.

16)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mon, *Resident Aliens* : life in the Christian col-

대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의 힘을 사용해 세계를 우리가 살기에 좋은 장소로 만들려는 견해를 콘스탄티니즘의 형태로 본다.¹⁷⁾ 하우어스는 교회가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의 속임수, 질투, 권력승배, 오만에 대항하는 장을 취할 것을 주장한다.¹⁸⁾ 그 모습을 고백교회에서 찾는다. “고백교회는 십자가의 교회이다. 십자가는 존재하는 권력에 대한 교회의 침묵하고 고통당하는 굴복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혁명적인 참여이다” 라고 말한다.¹⁹⁾

루터 역시 세상의 악마적인 힘들과 타락의 정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악한 사회구조는 악한 인간들에게서 만들어 지며 인간의 악한 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의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⁰⁾ 루터는 이 개혁의 출발점을 교회 권력의 해체로 시작한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릇된 희망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루터는 1519년 2차 시편강의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말한다.²¹⁾

3. 권위 앞에서 복종과 훈련

루터는 신앙과 행위의 분리를 거부한다. 신앙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이다. 그리스도

on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131.

17) Ibid, 37.

18)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4), 54.

19) Stanley Hauerwas; William H. Willmon,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47.

20) 김주환, “마르틴 루터의 인간이해,” 164.

21) 정병식, “칭의와 성화를 통해 본 루터신학의 현대적 의의,” 76.

를 따르는 삶으로서의 신앙을 “좋은 일,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일, 소명의 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필연성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일임을 강조한다. 루터는 “내적인 필연성”을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람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통해 말한다.²²⁾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필연성”은 신앙을 가진 자의 삶 속에 주입된 십자가의 본성에 일치하도록 훈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지라고 생각된다. 그 훈련은 십자가를 통한 훈련이기에 “고통을 당하는 것과 죽는 것”이다.²³⁾ 루터는 훈련과 복종에 있어서 자발성을 중요시 한다. 이를 영적 정부를 설명하면서 표현한다. “영적 정부는 전적으로 강제적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그것의 권위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하우어스의 덕의 윤리에 있어서 “훈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훈련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음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이 됨의 의미를 깨닫도록 돕기 때문이다.²⁵⁾ 하우어스에게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덕의 실종을 초래한 근대 계몽주의 사상이 선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판단의 기술을 획득할 시간인 훈련 없이 정신이 실제적 세계에 적절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둘째, 훈련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공동체 내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⁶⁾

루터의 사상 속에는 십자가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십

22) 구스타프 빙그렌, 『루터의 소명론』, 41.

23) 위의 책, 38.

24) 김주환, “마르틴 루터의 인간이해,” 182.

25)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101.

26) Ibid, 105

자가의 훈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루터는 권위를 두왕국론을 통하여 분리하고 있다. 칼로 인간을 다스리는 “정치적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복음을 찾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교회”의 권위이다.²⁷⁾ 그러나 정치적 권위는 권력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루터에 의하면 정치적 권력은 창조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로서 이 세상 행악자들을 제어하고 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²⁸⁾ 하지만 권력과 권위의 차이는 자발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발적 복종을 통하여 훈련된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권위이다. 강제나 강요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 권력이다. 영적 질서를 통한 바른 권위가 세속 질서 속에서 나타나길 위한 루터의 생각은 세속적 현실 속에서 정치적 권력이라는 힘과 폭력의 사용을 용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하우어스의 표현대로 보면, 강제된 복종은 힘이 없으며 복종은 복종하는 사람의 합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²⁹⁾ 하우어스에게 권위의 적용은 교회와 세상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하우어스는 맹종(compliance)과 복종을 구별한다. 권력은 강요적 맹종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III. 덕의 형성

루터의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 속에서, 그의 인간됨과 사역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루터의 사상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드러나 있을 고독함을 인식함으로 시작한다.³¹⁾ 루터의 사상 속

27)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183.

28) 위의 책, 183.

29) Stanley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134.

30) Ibid, 134.

31) Hanns Lilje, *Luther Now*,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52), 112.

에서 고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해되던지 아니면 인간의 시험으로 이해되던지 간에, 루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낫신 행위를 나타내신다고 본다.³²⁾ 홀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발견되는 루터의 모습은 하우어스의 “여행”의 개념을 통한 덕의 형성을 연상시킨다.

하우어스에게 “여행은 거대한 모험”이다. 그는 여행의 본질을 “예수와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빵과 가방과 돈과 같은 안전한 것들을 신뢰하기 보다는 예수를 신뢰하는 여행이기에 위험한 모험이다”³³⁾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유가 아니라 예수에게만 신뢰를 두게 하셔서 덕의 경작을 요구하는 여행을 보이셨다는 것이다.³⁴⁾

루터에게 믿음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에서 시선을 놓지 않으며 그 밖의 어떤 것도 보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 믿음의 목적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과 좋은 결과를 희망하며 위험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한 인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의지의 행동이다.

35) 루터에게는 모든 위험을 무시하고 자신의 여행을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용기의 표현이었다.³⁶⁾ 루터는 철학자도, 조직자도 아니었다. 루터의 삶은 종교 개혁의 근본적인 결론이 해결될 때까지 싸워나가는 토대였다. 루터는 단지 스스로 자신의 작은 길을 따라가며, 그 앞에 놓인 믿음의 문제들을 자신의 길에서 싸워나가는

32)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163.

33) Willimon, William H; Hauerwas, Stanley; Saye, Sco, *lord teach us*, (New York: Abingdon, 2009), 14

34) Stanley Hauerwas; William H. Willmon, *Resident Aliens :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61

35)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44.

36) Hanns Lilje, *Luther Now*, 76.

자였다.³⁷⁾ 루터는 대담한 전사도 아니었으며 세상이 바라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의미에서 병사였다.³⁸⁾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선언을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만 했다.³⁹⁾ 루터의 전반적인 삶과 사역은 갈등하는 정치적 흐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온 것이다. 직관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는 그의 길을 사건의 복잡성과 혼란 속에서 발견하였다. 루터는 오직 자신이 시작한 방식으로 지속할 뿐이었다.⁴⁰⁾ 루터를 삶의 여정 속에서 사상과 삶의 일치와 연속성을 통하여 바라볼 때, 덕의 윤리의 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행위와 행위자

루터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도승과 같은 사람들이 고안해 낸 것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을 황야나 은둔처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사람들, 즉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⁴¹⁾ 루터는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시작한다면 행위로 곧 뛰어 앞으로 전진한다”⁴²⁾고 말한다.

윤원준은 “인간행위”에 대한 루터의 입장이 모순된 태도를 가졌다고 비판한다. 칭의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의 인간행위도 인정치 않는 입장과 행위는 구원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행위는 구원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이다.⁴³⁾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루터의 사상에 대한 오해

37) Ibid, 54.

38) Ibid, 55.

39) Ibid, 82.

40) Ibid, 87.

41) 구스타프 빙그렌, 『루터의 소명론』, 63.

42) 위의 책, 41.

43) 윤원준, “마틴 루터와 하나님의 의 : 루터의 칭의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복음과 실천』 48 (2011), 166.

라고 여겨진다.

루터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⁴⁴⁾ 그러나 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 행위는 믿음을 드러내주며 마치 열매가 그것이 좋은 나무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위가 의롭게 한다고, 그 행위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선한 일을 할 때 의롭다고 결론짓는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구별은 허위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다.⁴⁵⁾ 게다가 루터의 인간이해를 통해 본다면, 세상은 인간본성의 죄성에 의해서 악하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여겨진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선행을 계속해야 한다⁴⁶⁾는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입장은 하우어스의 견해와 일치한다. 하우어스는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도덕성을 구현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된다고 한다. 진실한 믿음으로 자신을 개혁하며 진리는 자아의 일치하는 개혁이 윤리라고 말한다.⁴⁷⁾

이러한 견해는 루터가 그토록 비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접점을 찾게 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성품의 윤리는 자신의 행동에 이유를 주는 인간의 능력과 묶여있기 때문이다.⁴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을 행하는 곳에서 실제적인 존재가 되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⁴⁹⁾

44)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100.

45) 마틴 루터, *Luther's Works volume six*, 지원용 편역, 『루터선집 제6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2), 383.

46) 김주환, “마르틴 루터의 인간이해,” 164.

47)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16.

48)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San Antonio : Trinity University Press, 1975), 67.

49) Ibid, 71.

이것은 행위자와 행위를 일치시키려는 사상적 배경에 서 있다. 곧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인 행위의 일치를 루터가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부분은 루터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하우어스의 접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하우어스는 행위자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분리하는 것은 도덕적 심리학을 왜곡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하는 질문의 필수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⁵⁰⁾고 본다.

하나의 일관된 인격과 그 인격에 근거한 행동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르게, 루터는 인간이 ‘두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고 신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영적인 인격’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살면서 비록 여기서도 궁극적으로는 신과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세속적인 인격’이라는 것이다. 51) 이러한 루터의 두 인격설은 툴리케에 의하여 이중도덕의 위험성 지적을 받는다. 기독교인이 내면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선(善)의 도덕을 성취하도록 의도되지만 자신의 공적에 따르는 세속사람으로서 행동할 때 그리스도인은 힘과 권력의 도덕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고 두왕국이 인간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별될 때 인간은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라는 두 가지 규범 앞에 서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그 결과 도덕적 무기력 현상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⁵²⁾

루터는 툴리케의 비판처럼 이중도덕을 원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루터는 행위와 믿음의 일치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50)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21.

51) W.D.J 카질 톰슨,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 『기독교사상』 228 (1977), 123-124.

52) 박정진, “루터의 사회윤리사상,” 73.

칭의의 동인(同人)에 기인되기 때문이다. 나는 참으로 사람의 행위는 동인에 기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행위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칭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일 때는 칭의는 동인에서부터 비롯된다.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되어지는 형제적이지요 외적인 칭의다. 이것은 결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사람들 앞에서 선행과 사랑이 필요하다.⁵³⁾

다만 루터는 내적인 사람은 전혀 어떤 외적인 공적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외적 행위가 내적 인격에 의로움의 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선행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더욱 더 믿음만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루터의 주장은 내적 인간이 외적 행위로 나타나기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⁵⁴⁾ 분명히 루터는 믿음은 사랑의 행위 안에서 한 사람의 이웃에 연결됨을 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소명의 성실성을 지속시키는 것⁵⁵⁾이 본질이었다.

이 부분은 하우어스에게도 일치한다. 하우어스는 덕의 완성인 행복을 말하면서, “행복은 우리의 덕스러운 행동들의 결과가 아니라 덕의 사람으로서 행해지는 것처럼 그들의 실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⁵⁶⁾라고 말한다. 물론 하우어스는 루터의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사이의 구별은 자아의 지속기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일치된 견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루터가 이러한 구별

53) 마틴 루터, 『루터선집 제6권』, 384.

54) 마틴 루터, 지원용 역, 『말틴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2003), 300.

55) 구스타프 빙그렌, 『루터의 소명론』, 24.

56) Stanley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20.

을 오직 발견적 학습의(heuristic)도구로서 구원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있다는 신학적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⁵⁷⁾ 루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루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위가 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앙만이 의롭게 하는 것이므로 되거나 혹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과, 또한 그 성격은 어떻든지 그러한 선행은 이 내적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⁵⁸⁾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지닌 특별한 목적과 일치하도록 행동을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⁵⁹⁾ 루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견해를 일정부분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는 복종을 전제로 한 행위이며, 복종은 바른 권위를 요구하며, 바른 권위에의 복종은 행위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발적인 덕성이 먼저 요구되기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루터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의 중요한 의미는 그가 좋은 성품을 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습관과 기질의 완전한 정착된 설정으로서 본다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에고 불구하고, 루터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덕이 본성의 외적 부과와 내적 내재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부분들은 외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덕에 대해 이해한다. 덕과 인간의 전반적인 성품은 영혼 안에 뿌리 박혀있고 진정으로 그 인간에게 속해있는 것이라고 본다.⁶¹⁾ 아리

57)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4

58) 마틴 루터, 지원용 역, 『말틴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300.

59)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45.

60) R. Scott Smith, *Virtue Ethics and Moral Knowledge*,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4), 16.

61) *Ibid*, 17.

스토텔레스는 특별한 인간이 소유하여야하는 본질(whatness)의 개념을 묘사한다. 인간적임(humanness)은 인격에 형이상학적으로 개성을 부여하기 위한 속성으로 단정된다. 이러한 개성을 부여받은 본질은 특별한 인간의 영혼(soul)이다.⁶²⁾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은 성숙한 인간 존재 속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도로 질서 지워진 능력들의 완전한 설정을 가진다.⁶³⁾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관찰자가 어떤 특별한 행동들이 선한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의 행위를 통하여 선택되는가 혹은 그릇되는가의 방식에 관심을 기울인다.⁶⁴⁾

그러나 루터는 칭의란 성령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인격적인 만남⁶⁵⁾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근거인 믿음은 소유물이나 혹은 선물로 얻은 덕목도 아닌 하나님의 공할⁶⁶⁾이라고 본다. 1538년 대림 제4주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설교에서 루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엄숙하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어떡해야 하는 바 그대로 되는 것이다.”⁶⁷⁾ 루터가 주장한 단 하나의 진정한 선행은 기독교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⁶⁸⁾

이러한 루터의 견해 역시 하우어스와 유사성을 가진다. 하우어스에게 인간의 행위와 성품은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성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우리의 성품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⁶⁹⁾고 본다.

62) Ibid, 15.

63) Ibid, 15.

64)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37.

65)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95.

66) 정병식, “칭의와 성화를 통해 본 루터신학의 현대적 의의,” 88.

67) 페터만스 편역, 『마르틴 루터의 강론』, 158.

68) W.D.J 카질 톰슨,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 132.

이는 루터의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행위자가 성품과 일치하는 행위를 한다는 하우어스의 개념과 접목점을 가진다.

2. 구원과 칭의의 기질

루터가 말하는 義(의)의 개념은 분명히 덕의 윤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에게 속해 있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義(의)”⁷⁰⁾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착된 인격”⁷¹⁾의 개념과 연관지을 수 있다. 루터의 칭의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pactum)의 개념”에 담겨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은 칭의의 은총이라는 선물을 줌으로써 응답한다”는 개념 속에는 “스콜라주의의 격언 즉, 자신 안에 있는 것(자신의 최선)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⁷²⁾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는 “계약적 인과관계의 원리”가 “칭의에 있어서 은총과 믿음의 밀접한 관계는 신의 계약의 결과물이지만 그것들의 본질적인 속성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한다.

오늘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총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계약 없이는 그 본성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고 계약을 맺으셨고,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약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키시며,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69)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21.

70)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144-145.

71) Stanley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12.

72)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95.

그럼에도 루터가 칭의와 관련하여 “계약적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면, “인간의 칭의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문제⁷³⁾ 루터와 덕과 성품의 윤리를 연결지을 수 있는 “기질”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칭의 방법(mode)”에 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된 은총의 기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실재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⁷⁴⁾ 성 토마스, 피터 오레올의 은총과 죄와 신적 수용의 본질 이해에 따르면, 칭의에 있어서 창조된 은총의 기질은 사물의 본질상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둔스 스코투스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스코투스는 은총과 죄와 신적 수용 사이의 관계는 순전히 우연적인 것이며, 그 실재들 자체의 본질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의 결정에 있다고 보았다. 신 어거스틴 학파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리미니의 그레고리 역시 기질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원리로 스코투스의 격언, 즉 창조된 것은 하나님 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⁷⁵⁾

이와 마찬가지로 루터도 기질(habitus)의 개념을 부정한다. 이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창조적 중재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켜 주는 사랑의 끈을 언급하는 어거스틴적 의미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루터는 기질 교리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한다.⁷⁶⁾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인간이 인격 속에서 성장하고 여전히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간이 된다”는 개념을 통해 “원숙과정

73) 위의 책, 98.

74) 위의 책, 91.

75) 위의 책, 92.

76) 위의 책, 94-95.

(maturation process)을 통하여 존재하는 계속적임(continuant)이 성숙함의 능력⁷⁷⁾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습관과 기질의 완전한 정착된 설정”이며 덕스럽게 되기 위하여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두기를 주장하고 있다.⁷⁸⁾

그러나 루터에 있어서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이성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신학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서 그릇된 내적기질이 새로운 의의 기질로서의 변화를 덕의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발견한다. 루터는 “옛 사람의 특징은 분명하게 소명과 이웃에게 장애물을 이루게 하는 진노, 질투, 욕심, 게으름, 오만, 불신 또는 그와 같이 분명한 죄이다. 이러한 죄는 억제되어 온유하고 참을성 많은 새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는다”⁸⁰⁾는 것이다. 내적 기질이 새로운 새사람의 기질로 변화되면서 계약적 인과론적 칭의 개념을 이어갈 여지를 남겨둔다.

성화의 개념도 칭의와 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병식은 루터의 사상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발전은 믿음에서 사랑으로가 아닌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발전”으로 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언제나 영과 육의 싸움이 동시에 일어난다. 성화란 이러한 싸움의 과정에서 점차 자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⁸¹⁾

77) R. Scott Smith, *Virtue Ethics and Moral Knowledge*, 15.

78) Ibid, 16.

79)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147-148.

80) 구스타프 빙그렌, 『루터의 소명론』, 63.

81) 정병식, “칭의와 성화를 통해 본 루터신학의 현대적 의의,” 88.

3. 칭의의 성향과 덕의 형성

1519년 성탄대축일 ‘이 말씀들은 성사이다’ 설교에서 루터는 아래와 같이 설교한다.

당신은 요한에게서 겸손의 본보기를 청하라. 그런데 그는 당신에게 겸손을 줄 수 없고 오로지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요한의 행적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보기 뿐만 아니라 동시에 힘 자체까지도 얻도록 청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방할 원형만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덕 자체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의 겸손이 되고 우리 마음 안의 겸손이 된다.⁸²⁾

루터는 분명히 은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겸손”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은 “본보기”의 개념과 “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루터는 율법이 낳는 자만심을 거절하기 위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의롭게 하지 교만한 자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⁸³⁾는 사상적 전개 속에 나온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루터에게 겸손은 믿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겸손은 믿음의 필수불가결한 결론으로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선 조건이었다.⁸⁴⁾ 그리고 이러한 겸손은 덕의 윤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우어스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모방자가 되도록 우리를 요청한다”⁸⁵⁾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하우어스도 “초대교회가 예수의 길을 모방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모방했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의미는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서 예수의 삶을

82) 페터만스 편역, 『마르틴 루터의 강론』, 172.

83)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100.

84) 윤원준, “마틴 루터와 하나님의 의: 루터의 칭의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167.

85)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67.

닮기를 배우는 것임⁸⁶⁾을 분명히 밝히기 때문이다. 하우어스의 덕의 윤리의 핵심은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들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덕스러운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며 “모방(copy)은 기계적인 모방이 아니라 같은 느낌과 같은 감정과 욕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⁸⁷⁾ 루터는 그러한 덕의 모방의 힘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지식 속에서 성장을 필요로 한다⁸⁸⁾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루터의 칭의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지는 것이다.⁸⁹⁾ 의롭게 되기 위해 인간이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자기비하 그리고 은총을 위해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자, 그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⁹⁰⁾ 이 부분에 있어 맥그레스는 루터의 사상을 설명해 준다.

루터는 겸손을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결과로서, 그리고 칭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칭의에 있어 겸손의 역할과 관련된 루터의 진술과 믿음과 관련된 진술을 연결시켜 볼 때, 믿음의 의는 루터신학의 기초가 되는 계약신학의 측면에서 칭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비록 은총, 믿음, 또는 겸손이 칭의에 유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더라도, 궁극적 원인은 정해진 구원순서에 근거한 신적 계약이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한 사람에게 틀림없이 은총을 준다.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의 의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생기는 의이다.⁹¹⁾

86) Ibid, 80.

87) Stanley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151.

88) Ibid, 151.

89)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101.

90) 위의 책, 116.

1514년 말 루터는 칭의를 얻기 위한 적절한 성향(disposition)이 바로 겸손(humility)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통찰에 도달한다.⁹²⁾ 겸손은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특별한 덕으로 설명된다.⁹³⁾ 하우어스 역시 나의 삶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발견된 용서의 하나님 나라 안에 위치시킴을 배우려면 겸손의 덕을 획득하여야 한다⁹⁴⁾고 말한다.

Dictata 후반부에서, 루터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위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인간은 그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물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게 된다⁹⁵⁾고 말한다.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비하가 그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과 같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여겨진다.⁹⁶⁾

겸손(humility)은 금욕적인 덕행과 연관하여 루터가 사용하는 용어이다. 물론 루터는 이 겸손의 성향 역시 자기 의의 성향으로 이해될 것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전적인 비하(humiliation)의 상태를 일으킨다고 본다. 비하가 적절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비록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동업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의 비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⁹⁷⁾

루터는 겸손 혹은 겸비를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루터의 겸손이 덕으로서 정립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난다. 그러나 분명히 루터의 신학 사상에는 “믿음의 겸손(humilitas fidei)은 오직 죄인이 자신

91) 위의 책, 126.

92) 위의 책, 165.

93) Stanley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143.

94)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90.

95) 알리스터 맥그레스, 『루터의 십자가 신학』, 136.

96) 위의 책, 133.

97) 위의 책, 166.

의 전적인 비하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할 때 이루어진다. 자기를 비우고 기도로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한다”⁹⁸⁾고 말한다.

IV. 나오는 말

덕의 윤리에 있어서 행위와 행위자의 본성의 일치성 그리고 행동의 지속성과 일치성은 중요한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닌 행위자의 일치성은 기독교 덕의 윤리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도덕적 덕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구현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도덕적 행위자이다.⁹⁹⁾ 나사렛 예수의 진실한 이야기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 것처럼 종교개혁의 상황 속에서 루터라는 한명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며 보여준 덕과 성품의 모습은 그에게서 덕의 윤리의 기초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두려움과 위협과 혼돈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삶의 연속성과 일치성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따르는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갈등과 평화의 본성을 유지하려는 내적이며 외적인 싸움을 신학사상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루터가 직접적으로 “덕과 성품의 윤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신학사상 속에서 덕과 성품의 윤리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루터는 “시작의 윤리”를 펼쳤다는 전제 속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첫째, 교권과 권력의 연합을 말하는 콘스탄티니즘을 해체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첫발을 딛고자 힘든 싸움의 길을 살아간 것이다.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교회 구성원 각자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통해 살

98) 위의 책, 165.

99) R. Scott Smith, *Virtue Ethics and Moral Knowledge*, 13.

아가도록 하는 신학을 전개하였다. 루터가 교권과 세속권의 연합을 중요한 문제로 비판한 것처럼 한국사회도 교권과 세속권력의 연합이 문제시 되어왔다. 한국교회는 콘스탄티니즘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그리고 근본주의적이며 유교적인 교회의 흐름이 이어져왔다.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루터의 삶과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동일한 위험의 여정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위험과 여행의 길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장했던 루터의 삶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해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루터의 두왕국론이 이원론적 의미를 지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덕의 윤리로 해석할 때에 그의 사상이 충분히 실천적이며 사회윤리적인 적용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왕국의 구별은 영역적 이원론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적 질서 속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여받는다.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그리스도인은 폭력이 용인되는 세속적 질서 속에서 그 성품과 일치하는 지속적인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셋째, 칭의의 개념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개념은 계몽주의와 이성주의를 통하여 내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루터의 사상을 덕의 윤리를 통하여 바라볼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 속에 겸비, 친밀감,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려는 용기, 종말론적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세속 질서 속에서 행위자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품의 행위자는 세속적 질서 속에서 성품을 외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글단행본

- 마틴 루터/ 지원용 편역. 『루터선집 제8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5.
_____/ 지원용 편역. 『루터선집 제6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2.
_____/ 지원용 역. 『말틴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2003.
_____/ 이재하 강치원 역. 『루터: 로마서 강의』.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구스타프 빙그렌/맹용길 역. 『루터의 소명론』. 서울: 컨콜디아사, 1975.
마이클 슬롯/장동익 역. 『덕의 부활』.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서울: 홍성사, 2013.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스콧 래, 폴 콕스/김상득 역. 『생명윤리학』. 서울: 살림출판, 2004.
알리스터 맥그레스/정진오·최대열 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2001.
케네스 콜린스/이세형 역. 『존 웨슬리의 신학』. 서울: kmc, 2012.
페터만스 편역/이수현 역. 『마르틴 루터의 강론』. 서울: 분도출판사, 1995.

• 영문단행본

- Hanns Lilje, *Luther Now*,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52.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Washington D.C, 1996.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1.
R. Scott Smith, *Virtue Ethics and Moral Knowledge*,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4.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mon, *Resident Aliens :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Nashville : Abingdon press , 1991.
_____, *lord teach us*, New York: Abingdon, 2009.
Hauerwas, Stanley , *(A) better hope*, Grand Rapids, Mich: Brazos Press, 2000.

- _____, *After Christendo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_____, *Christian among the Virtue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 _____,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 _____, *Performing the faith*, Grand Rapids, MI : Brazos Press , 2004), (Grand Rapids, MI : Brazos Press , 2004.
- _____,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_____, William Willimon, *(The) truth about God*,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_____,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San Antonio : Trinity University Press, 1975.

• 한글 소논문

- W.D.J 카질 톰슨.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 『기독교사상』 228 (1977), 121-134.
- 김종길.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믿음,” 『신학사상』 144(2009), 7-41
-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인간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2000), 159-195.
- 박정진. “루터의 사회윤리사상,” 『기독교사상』 305(1983), 67-79.
- 윤원준. “마틴 루터와 하나님의 의: 루터의 칭의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복음과실천』 48 (2011). 161-175.
- 정병식. “칭의와 성화를 통해 본 루터신학의 현대적 의의,” 『신학사상』 135(2006), 73-98.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11일

심사개시일: 2016년 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05일

 • 국 문 초 록 •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인간의 전반적인 성품이 영혼 안에 뿌리 박혀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어떤 일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덕의 윤리의 토대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루터의 사상은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덕의 윤리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원동력이 되는 덕의 본성이 외적 부과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적 내재인가의 관점의 차이도 덕의 윤리의 접점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는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루터는 칭의와 관련한 계약적 인과관계와 인간의 칭의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칭의를 얻기 위한 적절한 성향(disposition)이 바로 겸손(humility)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통찰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루터는 칭의란 성령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계성, 믿음의 개인적 성품의 사상은 그의 윤리적 사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루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의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 내적인 성향과 덕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의인이 되는 행위의 지속성과 행위자의 일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덕과 성품의 윤리의 신학적 입장을 지닌 대표적인 학자 스텐리 하우어스는 성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아의 일치성과 지속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루터의 사상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행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일치하며 지속적인 행위의 연속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치와 지속성의 설명방식은 루터의 사상 속에서 덕과 성품의 윤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루터, 덕, 성품, 칭의, 겸손
